

광주글로벌모터스 '문제적 인사' 고수 갈등 키운다

주주 대표단 "여론 악화시키는 대안 없는 반대 중단해야" 시민단체 "구 시대 인물...우호단체 앞세워 여론 희석 말라"

광주시가 복수의 '문제적 인사'가 포함된 3인의 등기이사 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광주글로벌모터스의 법인 등기 방침을 고수하면서 지역사회 갈등을 키우는 모습이다.

"비리전력·비전문가"로 지적받은 박광태 전 광주시장, 지역노동계가 '반 노조 인사'로 결사반대 의사를 밝힌 현대자동차 출신 박모 전 부사장 등 3인을 등기이사로 세우려는 계획을 유지하면서 이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 진영과 환영하는 주주·경영자 단체 등으로 갈라지는 양상을 보이면서다.

시민사회 진영 일부에서는 박 대표이사 반대 여론이 들끓어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광주시와 박 대표이사와 광주시에 우호적인 단체들을 내세워 여론을 희석시킨 후 '법인 등기'를 강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주주 대표단은 9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인 설립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요구하며, 여론을 악화시키는 대안 없는 반대 의견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주주들은 박광태 대표이사가 법인 초기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정부, 현대차, 노동계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토대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하고 선임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시도해본 적 없는 사업 성격상 모두가 땀물 뭉쳐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일부의 대안 없는 반대 의견으로 사업 진행이 저지되는 것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대표이사 선임 반대 논란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인 설립을 위해 내부 투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사명을 확정 지었으나, 대표이사 등 임원 선임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찬반 여론과 함께 갈등을 빚고 있다"며 "하루빨리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총은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은 지역민의 염원이다"며 "자동차로 시작하는 광주형 일자리가 좋은 성과를 보이면 다른 산업 분야로 확산해 그야말로 기업 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광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을 광주형일자리 모델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초대 대표이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는 확고하다. 박 전 시장은 비리로 얼룩진 구시대 인물일 뿐 아니라 2021년 하반기 자동차 생산을 위한 초기 설계와 경영의 토대를 구축할 전문성도 결여된 인물이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지난 5일 '박광태 대표이사 사퇴를 위한 대책위'를 꾸린 '참여자치 21'과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정의당 광주시당,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가)광주시의회모니터링단 등은 이날까지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복지공간플러스, (사)광주시민센터, 광주청년유니온, 청년상상넷(청년정책네트워크) 등 5개 참여단체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키워나가고 있다.

광주시청 현관 앞에서 아침마다 1시간씩 펼쳐온 '1인 시위'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대책위는 이르면 10일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보내 '초대 대표이사 박광태'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를 명확히 따지기로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용섭 시장이 직접 발탁한 박광태 대표이사는 광주 시민의 염원이 깃든 광주형일자리 초대 대표이사감이 절대 아니다"면서 "우호적인 단체들을 내세워 '박광태 반대' 여론을 희석시킨 후 추석 전 후로 기습적으로 법인 등기를 할 것이라는 전망 대로 실행된다면, 이 시장은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주주단이 9일 광주시의회에서 법인 등기를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시와 주주들이 박광태 전 시장을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한 지난달 말 이후 박광태 대표를 적격성을 놓고 찬반 진영이 입장 표명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시 제2회 추경 5조7751억 편성

광주형일자리 등 현안 중점 투자

광주시는 제1회 추경 대비 1709억원(3.0%) 증액된 5조 7751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9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1124억원 증액된 4조 6599억원, 특별회계는 585억원 증액된 1조 1152억원이다.

세입 중 지방세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추가 징수로 252억원이 늘었고 세외수입 357억원, 정부추경 반영분 등 국고보조금 491억원, 특별교부세는 41억원 등이 증액

됐다. 이번 추경은 국가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경제활성화, 미세먼지 대응 등 국가적 현안 및 지역활력화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추경 관련인 시민 체감형 미세먼지 대책 추진 256억원, 일자리사업 86억원, 복지시설 공기정화장치 등 14억원 등을 반영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예산 노후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및 폐차 지원에 각각 12억4000만원, 164억5000만원을 편성한 게 눈에 띈다.

지하철 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에도 35억 2000만원 편성됐다.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4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3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61억원, 인공지능 등 지역산업육성에 31억원을 계상했다.

김광휘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정부추경 확정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편성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추석 연휴 특별경계 근무 전남도소방본부

전남도소방본부는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한 특별경계 근무에 돌입한다.

11-16일 소방공무원 2900여명·의용소방대 1만 2000여명·의무소방원 등 총 1만 4000여 명의 소방인력과 장비 624대를 운용한다.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 대상에 대해 특별경계 근무를 하고 주요 역·터미널·고속도로 등에 구급차를 배치해 신속한 응급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소방서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확립해 재난 발생 초기에 신속한 초동진압과 구조·구급 활동에 나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가을 여행, 광주로 오세요"

시, 다크투어 상품 활용 여행 주간 관광객 유치

광주시가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을 활용해 가을 관광객 유치를 꾀했다.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12일부터 29일까지 추진하는 가을 여행주간에 개최되는 '2019 모두투어 여행박람회'와 '서울시 국내여행 박람회'에 잇따라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광주만의 다크투어 상품 등을 활용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를 펼친다.

다크투어리즘은 잔혹한 참상이 벌어졌던 역사적 장소나 재난·재해 현장을 돌아보는 여행이다. 대표적인 다크 투어리즘 장소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400만 명이 학살당했던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다.

먼저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2019 모두투어 여행박람회'에 참가한다.

57개국 420여 개 지자체와 관광업체, 3만여 명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1913송정역시장, 518자유공원 등을 여행하는 '광주 인문학 투어' 등 모두투어와 연계한 광주관광상품을 소개한다.

큐알(QR)코드 셀프가이드북과 부스 내 홍보 동영상 등을 활용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근대역사문화마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광주의 관광명소와 행사를 안내한다.

또한 광주시는 가을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하는 '국내여행 박람회'에 참가해 광주 관광자원을 소개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신보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 청문

광주시의회, 16일 보고서 채택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변정섭(60) 광주신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투기 의혹과 교통 법규 위반 문제 등이 지적됐다.

김학실(민주·광산3) 시의원은 9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나주에 땅(430평)을 샀는데 농지 취득 자격을 받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의원실에서 직접 방문했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있었다"며 "한전공대 설립 추진 이후 시기가 많이 흘렀는데, 다른 매입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익주(민주·광산1) 의원도 변 후보자가 29년 전 광양의 임야를 3000만원에 들여 샀다며 투기 의혹이 있다고 했다.

이에 변 후보자는 "퇴직하고 4000만원 주고 매입해 주말농장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과수 농사를 하고 있다. 농사와 다른 목적은 없다"며 "한전공대와 예정지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 농사를 짓든지 팔든지 하겠다"고 해명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최종 임명한다.

/오광록 기자 kroh@

광주시, 시립묘지 추석 성묘객 대책 마련

시내버스 증차·상황근무반 운영 영락공원 임시분향소 44곳 설치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립묘지를 찾는 시민들의 편안한 성묘를 위해 시내버스 증차와 주차, 교통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로 성묘객들을 맞이 위해 10일까지 묘역 청소와 벌초, 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쓰레기 수거 등을 마무리한다. 영락공원 제1·2추모관에는 임시분향소 44곳을 추가 설치한다. 연휴기간 성묘객들을 위한 안내소를

운영하고 4개반 44명으로 상황근무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광주시는 추석 연휴인 12일부터 15일까지 성묘객 14만여 명이 시립망월묘지와 영락공원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묘객 교통편의를 위해 지원15, 용전86, 518번 등 3개 노선에 시내버스 30대 172회를 증회 운행하고, 임시주차장 등을 포함한 영락공원 1241개면과 망월묘지공원 1030개 면 등 총 2271개 면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11일부터 16일까지 특별경계근무 등 소방안전대책을 강화한다.

/김형호 기자 khh@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